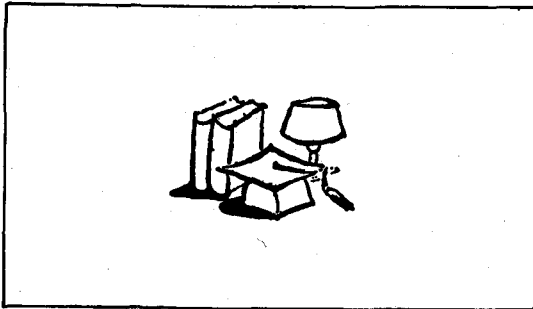


# 單一주제를 쫓아라!

—環境專門紙·誌를 말한다—

(3)



朴昌根 <(社)環境教育會 會長>

「公害安全」은 “公害防止·環境保全·安全施設의 專門誌”를 그 發行 목적으로하고 있다.

그래서 內容도 多様하게 이것 저것을 다 涉獵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因해, 문제의 核心을 잃는다면 野生馬를 가뉘들 울타리만 계속 만들뿐, 野生馬를 잡아드릴 생각을 잃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욕심껏 이것 저것 다 쫓아 담으려 하지 말고,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을 선택해 열심히 모았으면 한다.

물론, 公害防止와 環境保全 그리고 安全施設은 한 울타리의 같은 맥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진다면 公害防止는 보다 技術工學的인 측면으로 環境保全과 같은, 보다 意識的 측면과는 어딘가 거리가 있으며, 특히 安全施設은 作業場의 여러 조건에 의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어, 이 셋을 애써 한 울타리에 가두다 보면, 前記한 「公害對策」에서 지적한 것처럼,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닌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분명한 讀者를 잡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運營도 어려워져 雄志도 꺾이기 전에, 좌초하기가 쉽다.

筆者는 5년 전 「公害安全」이 創刊될 때, 創刊 記念 세미나에서 特講을 한적이 있었다. 그때 筆者는 公害의 危害性을 호소하면서 이 雜誌가 國民意識改革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었다.

즉, 公害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므로 그 公害를 막는 일도 사람이여야 하기 때문에, 技術에 앞서, 사람의 생각, 마음 가짐이 더는 중요하다고 力說한 것이다.

아무리 技術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技術을 이용하는 사람의 정신이 대단하지 못하면 技術은 한 낫 技術 그 自体로만 머물지만, 技術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그 技術을 다루는 사람의 정신이 똑바르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된다.

그래서 創刊되는 「公害安全」은 그 무엇에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國民意識改革에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그후, 筆者가 가끔 만나는 「公害安全」은 욕심이랄까? 포부가 넓다고 할까? 하여간 다치는 대로(?) 公害의 “公”字와 環境의 “環”字 그리고 安全의 “安”字만 붙은, 붙일 수 있는 내용이면 모두 收斂하고 있었다.

안타깝고, 답답했다. 이렇게 이것 저것 다 취급할 일이 아닌데... 그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할텐데 하는 아쉬움에서였다.

이런 아쉬움은 이 雜誌를 發行하고 있는 姜元敏씨가 돈이 많아 심심풀이로 雜誌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筆者는 '84년 「公害安全」울산支社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演士로 참석한적이 있었다. 그때 筆者는 時間 관계로 姜社長과 함께 비행기편으로 울산에 갔었다.

그러나 울산 支社에 가서 「公害安全」의 財政 形편을 알고는 비행기편을 이용한 것을 후회했다. 雜誌의 經營이 생각한 것 보다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歸京 길에는 고속버스를 타고도 못내, 마음이 편칠 못했다.

環境保全이라는 어찌면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式을 계속하는... 돈도 명예도 되지 않는 일 에다가, 專門誌가 걷기 어려운 한국의 風土에서 「公害安全」이 허덕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후 筆者는 「公害安全」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러다간 안되는데... 하며 속을 태워 왔다. 그것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지의 사진에 統一性이 없다는 것이다.

꽃 사진을 내보내는가 하면, 個人 人物 사진이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인터뷰 사진에, 회의 장면 사진 등... 물론 時事性을 이야기 하겠지만 한 雜誌의 사진은 人物 초상이면, 人物 초상, 自然風景이면 自然風景으로 統一되어야지 이 달치와 바로 그 다음 달치의 표지가 180°로 분위기가 뒤 바뀌면 혼란해진다.

그리고 「公害安全」의 題號 色이 金赤色으로 너무 자극적인데다가 題號 바탕色이 진한 녹색으로 配合이 촌스러워 보였다.

뿐만 아니라 本文 내용의 編輯도 지나치게 기교를 부려, 오히려 글의 내용을 들뜨게하고 있는 것도 큰 흠이었다.

한마디로 安定되지 않은 자세가 답답했다. 더구나 충실히 풀어야 할 문제를 2~3 page, 어떤 것은 1page 또는 1/2page로 극히 단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讀者의 知識을 수박 겉핥기 式으로 만들고 있음은 더욱 안타까웠다. 그동안 筆者가 본 「公害安全」誌 중에서 몇가지 를 추려 보면...

'85년 11호 73P=“알아들 墓儀”: 「公害安全」 답지 않은 記事다. 차라리 우리나라의 제한된 國土 사정을 설명하고, 매장법에 대한 새로운 계몽을 펼쳐야 했었다. 즉 넓은 묘역을 차지하기 보다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등의...

'86년 3월호 70P=연재소설 「復古風戀歌」: 정말 어찌자고 제목같이 復古風의 소설을 게재했는지 모르겠다. 소설의 作家가 「公害安全」의 編輯長이라면 능히 公害나 環境保全을 주제로한 소설을 쓸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公害安全」과 관련되는 외국의 소설을 번역해 게재할 수도 있지 않았는지?

'86년 7월호 79P=「社告」: 「公害安全」社의 직원을 파면, 해임한다는 명단을 사진과 함께 全面에 걸쳐, 대문짝만하게 公開한 것은, 雜誌라는 公器로서의 品位를 떨어트리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거나 한 때는 직원이었

던 사람들의 비위가 밝혀져 파면령을 내리고, 의원 사직이 아닌, 해임령을 그렇게 公開的으로 밝히는 것은 「公害安全」 자체의 문제성 (관리소홀)을 公開하는 것도 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 조용히 비위자들을 해임 공고할 수도 있었을 것을, 크게 다름으로써 讀者들에게 不信을 준다는 것도 생각했어야 했다.

'86년 8-9 합병호 70P=“건강한 하루를 약속합니다.”:題下의 프로필인지 상품 선전인지 모를 記事는 「公害安全」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이였다. 특히 원고 끝에 척추 및 근육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위의 「로울링, 베드」라는 침대 문의처를 자세히 밝힘으로서 公開的으로 商品 판촉을 도운 것은 公器가 취할 태도가 아니였다.

'86년 11월호=컬러 화보 「陶磁工藝」는 「公害安全」에 어울리지 않는 아까운 Art紙, 컬러 지면이였다. 차라리 Art紙 컬러로 밖에는 처리할 수 없는 公害에 대한 特別 화보를 게재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하여간, 「公害安全」誌는 發行 目的인 “公害防止·環境保全·安全施設의 專門” 등의 너무 多樣한 目的을 위해, 이것 저것 휩쓸면서 쫓다 보니, 그 중 어느 한가지도 완벽하게 定理하지 못한 상태다. 어쩌면 잡힐듯, 말듯 그렇게 쫓고, 쫓겨온 5년의 세월이 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여기에서, 성급하게 따져볼 批評, 批判의 여지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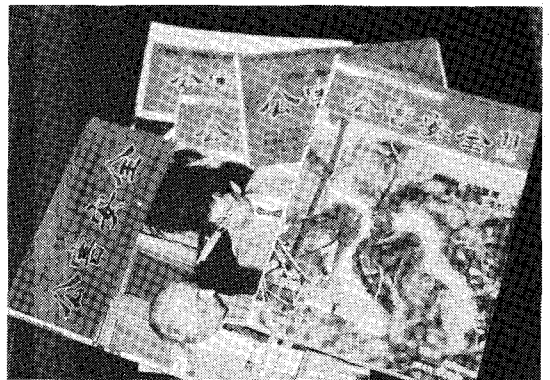
다만, 앞으로 보다 目的을 合一 내지 축소해 한 마리의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라는 것은, 오늘 날 環境專門 言論이 多樣하게 (生活環境, 관리인 專門, 建設전문環境 등 分業化됨) 여기, 저기 많이 出刊되고 있는 時點에서는 單一 주제에 의한 노력이 成功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書頭에서 밝혔듯이, 雜誌는 하나의 公器로 “위 사람은 1986년 12월 1일자로 장기

결근 및 공금 횡령으로 해임하였기에 공고합니다.”('86년 12월호) 따위의 집안 흥을 들어내 놓음으로써 公器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讀者에게 不信을 갖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公害安全」誌의 모든 職員은 個人이 아닌 公人으로서의 각오로 이 나라의 環境保全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더욱 용기있게, 더욱 창조적으로 自身을 희생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環境保護를 내세우는 「公害安全」誌의 길이며, 그 길만이 言論으로서의 公器의 참 뜻일 것이다.



筆者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發行되고 있는 環境問題 專門紙·誌 중에서 市販用 商業紙·誌에 대한 方向, 內容 그리고 編輯 등을 分析, 評價했다.

綜合的인 全体 結論은 이 연재의 끝 마무리에 서로의 연계점 등을 검토해 定理하려고 한다.

즉, 서로의 불필요한 경쟁, 같은 내용의 중복 등을 피하고, 서로 효과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環境言論의 길은 같다. 즉, 環境保護 그 숭고한 目的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서로 비슷 비슷한 얘기는 어쩌면 環境保護의 낭비며, 國力 손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효과적인 길을 찾

자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環境 관련 團體(協會, 研究所 등)의 기관지를 創刊, 年代順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한다.

## 자연보존

〈創刊: 1975년 8월 / 발행·편집인 金昌煥 / 발행처: 社團法人 韓國自然保存協會〉

機關紙·誌란 어떤 機關(Organ)의 정신을 펴거나 利益을 도모하기 위한 報告나 또는 言論을 기재하는 신문과 잡지를 말한다.

즉, 기관지의 발행 및 편집 方向은 일반 市販用紙·誌의 性格(발행인의 思想과 哲學 내지 讀者를 위한 자세 그리고 商業性 유지 등)과는 달리 오직 발행 機關의 設立目的과 事業을 충실하게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韓國自然保存協會가 10여년 동안 꾸준히 발행, 배부해 온 「자연보존」誌는 뚜렷한 方向感覺과 무게있는 內容 등으로 오직 韓國自然保存協會의 設立目的인 “自然保存을 위한 研究와 이에 관한 知識의 보급”만을 위해 기관지 본래의 使命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協會」의 기관지는 그 性格上, 권위주의적 주장과 편견적 자세를 취하기가 쉽다. 그러나, 「자연보존」誌는 協會의 設立目的만을 위해 충실하려 했지 결코 協會의 권위나 이익 따위를 위해서는 아부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보존」誌의 품위있는 論說과 정확한 資料를 제시해 주는 研究報告書, 그리고 모가나지 않는 提言 등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기교를 외면한 安定된 編輯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한 學術用語, 맞춤법(이 雜誌의 表記는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세련된 文章 정리는 이 雜誌에 게재된 글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자연보존」誌는 每號, 單一 主題에 의한 格

높은 特輯을 엮어, 읽고 버리는 雜誌에서, 모아서 資料로 삼을 수 있는 雜誌를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學術誌로서는 나무랄데 없는 雜誌다. 그러나, 꼬집어 흠을 잡는다면 지나치게 圖式化된 研究, 學術誌에 심취하다 보면, 雜誌 본래의 多樣性을 놓치기가 쉽고, 극히 제한된 筆陣(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과 固定된 內容 등은 學術誌가 범하기 쉬운 惰性에 젖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보다 과감하게 筆者를 개발(自然保存을 위해 유기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분야의 筆者나 자연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學徒 등)해야 되며, 또한 건전한 논쟁(학술상의 異見을 研究 차원에서 對立시켜, 學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方向으로)이나, 비평·비판의 글도 폭넓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하여간, 「자연보존」誌가 오늘날과 같은 專門誌 戰國時代에서 인기가 호기심 따위에 굴하지 않고, 오직 고고하게 자신의 길만을 걸고 있음은 環境言論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는 이 雜誌를 創刊初期부터 編輯 주관해 오고 있는 李恩復씨의 높은 學問의 자세와 人格의 所産이라고 믿는다. 環境人의 한 사람으로 喝采를 보낸다.



## 月刊 野生動物

〈創刊: 1978년 4월 / 발행·편집인 吳要翰 / 발행소: 社團法人 韓國野生動物保護協會〉

그동안 環境專門紙·誌를 말하면서 筆者는 극히 객관적으로 表出된 사실만을(言論의 한국적 현실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편집과 내용 등의 여러 雜多한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오직 눈에 들어나 보인 사실만) 分析, 評價했다. 그러다 보니 때로 바람직하지 못한 編輯을, 쇠신해야 할 內容을 모질게 따지고 나무랄 수 밖에 없었다.

사실, 그동안 筆者가 말한, 또 앞으로도 말할 環境言論의 發行人과 編輯者들은 거의 모두 筆者가 존경하고, 아끼는 筆者와 親분이 두터운 분들이다.

그래서 한 때는 공연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고 후회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더욱 發展的인 環境言論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가? 언젠가는? 분명히 집고 넘어갈 일이기,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 분들과 가까운 筆者가 희생의 羊이 되는 것이 덜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이라 믿어 붓을 놓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새삼 筆者의 의도를 다시 분명히 하는 것은 韓國野生動物保護協會의 機關誌인 「野生動物」誌를 말하려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붓이 떨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野生動物」誌는 體制, 編輯, 內容 등 모든 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180°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協會를 위해 낳은 雜誌가 될 것이다.

筆者는 野生動物保護協會를 創設하고, 「野生動物」誌를 발행하고 있는 吳要翰씨와는 오래 前부터, 두터운 親分을 맺어 오고 있는 사이다.

野生動物이란, 그저 사냥감 정도로 알고 있었던 1970년대 初부터 吳要翰씨는 私費로 百

草 클럽(協會 前身)을 만들어 자연보호를 위해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후 정식으로 協會를 인가 받고는 世界의 많은 자연보호 단체와 교류를 하면서, 이 나라의 野生動物 보호에 희생적인 노력을 바쳐온 분이다.

高齡임에도 불구하고, 野生動物 보호를 위한 정열은 젊은이 100명을 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면서 野生을 외면하는 것은 未開人의 속성이라며, 이 나라를 국제적으로 未開國으로 평가 받게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물론, 그것은 돈도, 명예도 되지 않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다. 그래서 吳要翰씨가 만든 「野生動物」誌는 雜誌라고 부르기에 안타까운 정성 하나로 꾸며진 빈약한 雜誌로, 世人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 후 10년이 가까워 오는 오늘, 「野生動物」誌는 99號를 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난 티를 못 면하고 있다. 특히, 정상 活字를 이용하지 않고, 表紙에 고무 도장을 찍어 號數를 밝혔고, 本文에도 이곳, 저곳의 活字를 주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